



사순 제1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현실이 되는 꿈 이야기

올해 오랜만에 미사를 재개한 뒤 강론 시간을 통해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팬데믹인지 뭐시인지 때문에 일 년을 넘게 인간사 흥흥하다 못해 삭막하게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네 꼬라지(뒤통이)도 모르고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 말씀하라 하시니 이젠 뭐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신부더러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싶어 난감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신부와 신자들부터 쏘매씩 하느님 나라를 복구한다면 언젠가 이런 뉴스가 아침에 딱 들려 오지 않을까?’

비록 코로나19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지만, 아침에 눈을 떠 TV를 켜는데 까랑까랑한 앵커의 목소리로 예전과 상반된 뉴스 오프닝 멘트가 들려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어제 하루 너무 아름답고 가슴 뭉클한 소식들이 많아서 어느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할지 행복한 고민과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정말 이런 뉴스가 어느 날 들려온다면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노력으로 조금씩 완성되어 나가는 하느님 나라가 아닐까 하는 기분 좋은 꿈을 꾸어 보았습니다. -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짐승 구분에 육식, 초식 이런 건 학문적인 구분일 뿐이지 실제 짐승들은 이것저것 먹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이 꿈이 마냥 허상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리만을 전해주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신약의 예수님과 극성스러운 팬들의 관계를 보면 시간이 걸릴지라도 시나브로 그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후 이천 년이 지난 시간의 흐름 속에 조금씩 너무 가물지 않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저의 이 꿈이 현실이 될 거라는 믿음을 함께 가져 주십시오.

어느 소녀는 아름답고 멋지진 않아도 힘들 때 눈치 보지 않고 설 수 있을 자기 가족만의 집이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뇌의 세월을 살아온 어르신은 그저 제대로 걸어서 성당에만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어느 부모님은 과거 좋은 집에 태어나서 제대로 교육만 받았다면, 그래서 성공까진 아니더라도 무식하지 않아서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주어진다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들은 제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만난 사람들이고, 이 꿈은 제가 가정방문을 통해 자주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사순 시기가 이러한 이들의 모습이라면 40일 후에 만날 부활의 시간은 이들에게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순은 모두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 꿈이 현실이 되게 하는 부활을 희망하는 기간이라 믿어 봅니다.



김형렬 요셉 신부 | 하청본당 주임



제 1 독 서 창세 9,8-15

화 답 송 ©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제 2 독 서 1베드 3,18-22

복 음 마르 1,12-15

주일 진레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마태 20,18) 사순 시기: 믿음, 희망, 사랑의 쇄신을 위한 때

파스카 여행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사순 여정 안에서, 이 회개의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희망의 “생수”를 길어 올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형제자매가 되게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 들입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마태 6,1-18 참조), 단식과 기도와 자선은 우리의 회개를 가능하게 하고 드러냅니다. 가난과 극기의 길(단식), 가난한 이를 위한 관심과 사랑의 돌봄(자선), 그리고 자녀로서 하느님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기도)는 우리가 진실한 믿음과 살아 있는 희망과 실질적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1. 믿음은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느님과 모든 형제자매 앞에서 그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촉구합니다

이번 사순 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세세대대로 전하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이 진리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인성을, 그 한계까지 모두 취하심으로써, 쉽지는 않지만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생명의 충만함으로 이끄는 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극기의 한 형태인 단식은 단순한 마음으로 이를 실천하는 이들이 하느님의 선물을 재발견하게 도와주고, 하느님과 비슷하게 그분의 모습으로 창조되어 그분 안에서 충만에 이르는 피조물인 우리의 현실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단식은 우리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도와줍니다.

사순 시기는 믿음의 때입니다. 우리의 삶 안으로 하느님을 환대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함께 사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때입니다.(요한 14,23 참조).

2. 우리의 여정을 지속하게 해 주는 “생수”인 희망

예수님께서 마실 물을 달라고 청하셨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생수”(요한 4,10)를 주실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파스카 신비를 통하여 충만하게 주실 성령,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을 선사해 주시는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위태롭고 불확실해 보이는 요즈음과 같은 시련의 때에 희망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순 시기는 우리가 빈번히 착취해 온 당신의 피조물들을 계속해서 끈기 있게 돌보시는 하느님께로 되돌아서는 희망의 시기입니다(“찬미받으소서”, 32-33항, 43-44항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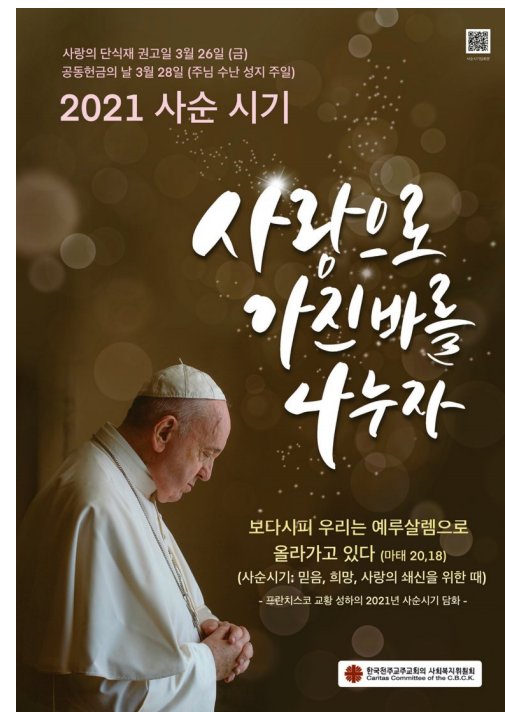
희망으로 사순 시기를 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묵시 21,1-6 참조) 새로운 시대의 증인들임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모든 이를 위한 관심과 연민으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랑은 우리의 믿음과 희망의 가장 고귀한 표현입니다

사랑은 다른 이들의 성장을 보며 기뻐합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이들이 근심에 휩싸이거나 외로워하거나 아프거나 집이 없거나 멸시당하거나 궁핍한 처지인 것에 아파합니다. 사랑은 마음의 도약입니다.

사랑은 선물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고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우리의 가족, 친구, 형제자매로 바라보도록 해 줍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랑으로 함께 나누면 결코 고갈되지 않고 생명과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작든지 크든지 기쁘고 소박하게 베푸는 우리의 자선도 이와 같습니다.

사랑으로 사순 시기를 보내는 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소외와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한 이때에,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이사 43,1)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믿고 희망하고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그리고 교회의 중심에서 언제나 충실하신 구세주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당신 사랑의 현존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주는 값진 교훈

이규준 바오로 시인/ 가톨릭 문인회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야 할 새해이지만, 어둠의 수렁에 빠져 불안과 하소연만 가득하다. 불청객 코로나19, 고개를 곤추세운 허기진 독사처럼 호시탐탐 사냥감을 탐색하고 있다. 잠시 스쳐가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 안방에 등지를 틀고 주저앉은 느낌이다. 그러면, 이러한 대재앙이 왜 인류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온 것일까. 어쩌면 예견된 사태, 즉 자업자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를 가톨릭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느님의 섭리를 거역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랑의 계명을 어긴 것이며, 공존 공생의 삶의 방식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다. 하느님이 애써 창조한 피조물들은 소중하다. 그동안 인간은 좌고우면 없이 일방통행만 하여 왔다. 절제할 줄 모르는 과도한 산업화와 무분별한 난개발은 환경파괴를 가져왔다. 환경파괴는 기후변화로 연결되고, 기후변화는 자연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먹이사슬은 왜곡되고 그 결과, 생물 다양성의 감소라는 필연적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로 인해 서식지를 잃어 부랑자가 된 생물은 인간의 고유한 삶의 영역으로 파괴되었다.

우리는 지금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동안 인류가 저지른 과오가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일상생활은 멈춘 지 오래이다. 집 밖을 나서면 온통 지뢰밭이다. 발 디딜 곳을 찾기가 어렵다. 오로지 마스크 한 장에 생명을 의지하여 기본적인 생활만 유지하고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니다. 성당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신앙생활은 온라인으로 대체되었거나 중단되었다. 그렇지만, 우리 가톨릭은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내 이웃의 삶을 존중하며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남의 탓이 아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를 구호가 아닌 가슴 깊이 반추해야 할 때인 것 같다. 공존 공생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환경을 파괴한 결과가 이처럼 가혹한지 상상도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살기 위해 늘 호흡하고 있지만, 공기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 본 적이 없다. 다이아몬드처럼 희소한 것은 가격이 높을 수 있겠지만 가치가 큰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 또한 이와 마찬가지이다. 너무나 미운 코로나19, 이로 인해 잃은 것이 많지만 느끼고 얻은 것도 많다. 반면교사의 역할은 충분히 한 셈이다. 당장, 대면 미사를 못한다고 해서 크게 상심할 일은 아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성경 통독과 필사, 자기성찰 등을 통해서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분명 그 끝은 있을 것이다. 마스크를 훌훌 벗어 던지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복음, 소외된 이들을 위한 말과 밥

조민아 마리아 교수/ 조지타운대학교

몇 년 전 미국 시카고에 살던 때, 노숙인 재활센터 두 곳에서 각기 한 학기 일정으로 신학과 영성 워크숍을 진행했었다. 내게는 그 시간들이 신학자로서 무엇을 질문해야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며,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이전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게 된 너무도 고맙고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삶에 - 특히 가난한 이들의 삶에 - 뿌리를 대는 기쁜 소식이다. 그 소식을 감싸는 언어도 가난한 이들의 삶에서 길어 올려져야 하며 그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전에 그저 머리로 알았을 뿐인 그 진리를, 나는 그때 마음으로 깨달았다.

노숙인들과 만나던 첫날, 나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사용했던 내용을 쉽게 정리해 '강의'를 준비해갔다. 당황했다. 내가 사용하는 개념어들은 그들에게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였고, 누구나 알고 있는 줄 알았기에 질문조차 던지지 않았던 교회 용어들은 그들의 삶과 괴리된 껍데기에 불과했다. 의미소를 이루는 단어가 생경한데 내용이 아무리 의미 있다 한들 전달될 리 만무했다. 두 번째 시간부터는 가르치고 정보를 전달하려 했던 내 욕심을 접고, 우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러다 보니 한없이 이어지고 펼쳐지는 주제가 감당이 안 되어, 나름 고안해낸 방식이 일상어로 쉽게 쓰여진 시를 화두로 삼아 함께 나누는 후, 시가 떠올린 자신의 이야기를 각자 종이에 적어 나누어 보도록 하는 것이었다. 반신반의하며 시험 삼아 던져 보았던 이 시도가 괜찮았던 모양이다. 들어주는 이 아무도 없어 고향이나 욕지기로만 터져 나오곤 했던 그들의 이야기가 말이 되어, 그림이 되어, 시가 되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자신의 종이에 적은 글들을 나누고 싶어 수줍게 손을 드는 이들이 하나 둘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던 날들의 흥분과 감동을 나는 잊을 수 없다.

'존재의 집'인 언어는 사람의 삶으로 빚어진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한 이들과 만나야 하고, 삶을 나누어야 하고, 그들의 언어를 통해 하느님 나라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는 당신의 강론에 가난한 이들의 일상이 담긴 비유를 사용했다. 그들의 마음에 당장 그림이 그려지고 손과 발의 감각이 떠올러지는 언어를 사용해 하느님 나라 이야기를 풀어 낸 것이다.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떠오른 표현들이 아니었을 것이다. 오랜 시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일상을 함께 하고 몸으로 체험하여 만들어낸 비유들이었을 것이다. 밭의 겨자풀과 부엌의 누룩 빵에서 하느님 나라를 발견했던 예수는 마치 시인이 소박한 일상에서 신박한 은유를 건져낸 것처럼 설레고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이야기로 풀어낼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겨자씨를 밭에 심으면 잡초처럼 쑥쑥 자라 다른 식물을 덮을 정도로 무성해진다는 것을 알았던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는, 그이가 하느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했을 때 겨자나무처럼 거침없이 하느님 나라가 그려졌을 것이다. 한 끼 한 끼가 소중했기에 아주 작은 양의 누룩으로 식구들이 함께 나눌 넉넉하고 부드럽고 달콤한 떡을 만들어 내는 기쁨을 알았던 그들의 혀끝에는, 그이가 하느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했을 때 하느님 나라가 떡의 향기처럼 퍼졌을 것이다. 예수의 강론은 가난한 이들의 삶을 담았기에 삶의 복음으로 선포될 수 있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언어를, 또 그 언어가 그려내는 비전과 상상력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께 말하고 나누고 꿈꾸며, 함께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천주교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 중에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분들을 많이 보았다. 연륜이 오랜 신자들 만이 알아들 수 있는 낯선 단어들이 아직도 교회의 공식 비공식의 용어로 사용되는 예가 많다. 교리는 더더욱 그렇다. 오랜 신자들조차 이해하기 힘든 교리들이 기계적인 언어로 전달되는 교리 교육은 어렵고 지루하다. 달달 외운다 한들 생활에 뿌리내리지 못한다. 코로나19 때문에 본당의 활동이 축소되고 미사마저 제한되는 요즘, 교회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전망과 예측이 분분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의 변화와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며 신앙 공동체를 새롭게 구상해야 할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과거의 습관 너머를 보게 하는 새로운 상상력이다. 그 상상력을 표현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사용하는 언어도 점검해야 한다. 신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 신자들의 귀에조차 어려운 교리들은 교회를 더 폐쇄적이고 자족적인 집단으로 만든다. ‘접촉’이 제한되는 요즘, 교회 안팎 이웃들의 삶을 살피고 교회의 언어를 점검하고 수정하고 보완하여, 말을 통해 삶을 어루만지는 ‘접촉’을 늘려 보면 어떨까. 그리하여 언젠가는 교회의 언어가 신자들뿐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의 삶까지 넉넉히 담아내는, 표현할 언어가 없어 한이 되는 그들의 고통을 품어 내고 풀어내는 집이 되고 실이 된다면 어떨까.

그러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얼마 전 들은 좋은 소식이 참고가 될 것 같다.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명동성당에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을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명동밥집은 서울 남대문, 을지로, 종로 일대의 노숙인들과 홀몸 노인 등 소외된 이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아 긴급 의료나 생필품 제공, 심리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가톨릭뉴스 지금여기 기사 참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포장 도시락을 나누어 주고 있지만,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조리한 따뜻한 음식을 제공할 예정이라 한다. 밥을 먹으러 오는 노숙인 수 이상으로 봉사자 수가 많다 하고, 신자들 사이엔 주교좌 성당이 지저분해진다는 불평보다 “이제야 교회가 교회다워졌다”는 호응이 더 많다 한다. 교회가 운영하는 무료 밥집이 이미 여러 군데 있지만, 주교좌 성당에 노숙인을 위한 밥집을 연 것은 의미가 깊다. 다른 교구들도 이런 시도들을 하며 소외된 이웃들과 만나고 그들의 말을 듣는 계기들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 가난한 이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만이 그들의 말로 대화할 수 있다. 들을 수 있는 교회만이 변화할 수 있다.





일 립



교구장 동정

사제평의회

일시: 2월 23일(화) 10:30

장소: 교구청

지구장 본당방문

일시: 2월 24일(수)

본당: 남지/ 대산/ 장재동/ 문산/ 상평동/
덕산동/ 용원/ 여좌동/ 경화동/
중앙동/ 대건/ 복신동/ 태평동

일시: 2월 25일(목)

본당: 함안/ 의령/ 가좌동/ 사천/ 서포선교/
하청/ 지세포/ 거제/ 고현

일시: 2월 26일(금)

본당: 칠원/ 창녕

교구/본당

예비신학교 담임 교안 연수

일시: 2월 22일(월)

장소: 교구청

문의: 성소국 055·249·7061

신학생 모라토리움 시작

일시: 2월 23일(화)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신학생 신학교 입사(광주신학교, 학부 2학년)

일시: 2월 25일(목)

신학생 신학교 입사(광주신학교, 신입생)

일시: 2월 26일(금)

그라초 자매교구 위원회

일시: 2월 25일(목) 11:00

교리교사 동계폐정(1박 2일)

일시: 2월 27일(토) 14:00~28일(주일) 14:3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주일학교 교리교사

주제: 하느님 안에서의 삶 “사랑이 무엇이기
에 이토록 보살피 주십니까?”(시편 8,5)
준비물: 마스크, 개인컵, 필기도구, 세면도구,
주일 봉헌금 등

문의: 청소년국 055·249·7051~2

가정사목분과위원 연수

일시: 2월 27일(토) 14:00~17:3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대상: 본당 가정사목분과위원

주제: 가톨릭 안에서 바라본 성이란?

문의: 가정사목부 055·249·7023

복음화분과위원 연수

일시: 2월 28일(주일) 10:00~16: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각 본당 복음화분과위원

준비물: 필기도구, 미사 준비

문의: 사목국 055·249·7021~2

청년간부 및 단체장 연수(1박 2일)

일시: 3월 13일(토) 14:30~14일(주일) 13: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지구 및 본당 청년회 간부, 사도직
단체장, 가톨릭학생회 회장단

참가비: 6만 원

준비물: 마스크, 텀블러, 세면도구(수건),
필기도구, 미사 준비

신청: 3월 7일(주일)까지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년부'검색

위원회/기관/단체

마리아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2월 기도 모임

일시: 2월 22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준비물: 메세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정기총회

일시: 2월 24일(수) 19:00

장소: 교구청

문의: 교구 정평위 055·261·8201

기 타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기간: 2월~12월(2월 예비학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기숙사 무료, 수당 지급

문의: 02·828·3600/ 대상: 15세 이상 남

※ 최근 5년 평균 취업률 89.2%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수강생 모집

개강일시: 3월 9일(화)

진주 항 외과의원

- 치핵(치질)/ 변비치료 - 피부 점/ 티눈 제거 수술
- 피부 혹 제거 수술 - 화상 및 상처 치료
- 귀두 표피 환상 절제술 - 각종 예방접종

진주시 중앙동 16-16번지 2층 (시내 교육청 앞)
TEL. 055) 748-0975

조영현 라파엘 박미리 엘리사벳

가톨릭마산

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문의: 홍보국 055)249-7072

제주 성지 순례 3일(추자도, 성지미사)

3. 5.(금)~3. 7.(주일)/ 3. 16.(화)~3. 18.(목)
4. 6.(화)~4. 8.(목)/ 4. 23.(금)~4. 25.(주일)

한국 성지 167완주

3. 22.(월)~3. 25.(목) 수원·청주교구 4일
5. 10.(월)~5. 13.(목) 대전교구 4일

마카엘여행사 010.8650.9690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010-2652-0706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일 립

정규과정(주간/야간) 주 1회, 14주간

대상: 음악에 관심있으신 분

문의: 051·519·0474~5

예비자 통신교리(우편, 사이버, 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5234호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요금: 1만 원

문의: 02·2274·1843,4/ 홈페이지: cdcc.co.kr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
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010·3551·2038



제15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홍보국(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 감:** 9월 30일(목)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레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2021-1학기 교구 『여정』 성경공부 일정

마산지구		
본 당	개 강 일	과 목
구암동	3월 8일(월) 20:00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호 계	3월 2일(화) 10:00	요한 복음서
월 영	3월 2일(화) 10:00	가톨릭 서간, 요한 묵시록
	3월 3일(수) 19:30	마태오 복음서
교 구	3월 2일(화) 10:00	마태오 복음서
양덕동	3월 2일(화) 10:00	은빛(로마서와 코린토서)
	3월 8일(월) 19:30	역사서 2
삼 계	3월 2일(화) 10:00	예언서
	3월 2일(화) 10:00	은빛(창세기)
	3월 5일(금) 20:00	시서와 지혜서
월남동	3월 2일(화) 10:00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3월 4일(목) 20:00	역사서 2
창 념	3월 3일(수) 19:30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완월동	3월 2일(화) 20:00	요한 복음서
	3월 4일(목) 10:30	요한 복음서
산호동	3월 4일(목) 20:15	마태오 복음서
함 안	3월 5일(금) 10:40	마르코 복음서
의 령	3월 3일(수) 10:30	은빛(로마서와 코린토서)
상남동	3월 3일(수) 14:00	은빛(지혜여정 5)
칠 원	3월 5일(금) 10:00	은빛(호세아서와 예제키엘서)
창원지구		
양 곡	3월 5일(금) 10:40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반 송	3월 2일(화) 10:40	역사서 2

창원지구		
본 당	개 강 일	과 목
반 송	3월 3일(수) 10:40	요한 복음서
용 집	3월 4일(목) 20:10	가톨릭 서간, 요한 묵시록
대방동	3월 2일(화) 10:40	가톨릭 서간, 요한 묵시록
사림동	3월 4일(목) 20:10	역사서 1
	3월 2일(화) 10:00	역사서 2
덕산동	3월 4일(목) 10:30	은빛(지혜여정 1)
	3월 8일(월) 19:30	요한 복음서
	3월 5일(금) 10:40	마태오 복음서
사파동	3월 8일(월) 20:00	바오로 서간
가음동	3월 5일(목) 10:00	요한 복음서
명서동	3월 4일(목) 12:40	은빛(지혜여정 3)
	3월 8일(월) 19:30	역사서 1
여좌동	3월 2일(화) 10:00	은빛(요기과 코헬렛)
진주지구		
가좌동	3월 3일(수) 19:30	바오로 서간
하대동	3월 4일(목) 10:00	요한 복음서
산 청	3월 3일(수) 10:30	은빛(지혜여정 3)
	3월 5일(금) 19:30	바오로 서간
상평동	3월 4일(목) 20:00	바오로 서간
함 양	3월 3일(수) 19:30	가톨릭 서간, 요한 묵시록
금 산	3월 2일(화) 10:00	요한 복음서
신안동	3월 3일(수) 20:10	오경 1
옥봉동	3월 3일(수) 19:30	마르코 복음서

진주지구		
본 당	개 강 일	과 목
문 산	3월 8일(월) 19:30	마태오 복음서
칠암동	3월 2일(화) 10:00	마태오 복음서
사 천	3월 5일(금) 10:30	요한 복음서
	3월 5일(금) 19:30	요한 복음서
봉곡동	3월 2일(화) 10:00	은빛(지혜여정 5)
	3월 3일(수) 19:00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거제지구·북지시설		
장 평	3월 5일(금) 10:30	역사서 1
대 건	3월 2일(화) 10:00	요한 복음서
	3월 4일(목) 10:00	은빛(탈출기)
	3월 5일(금) 19:30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북신동	3월 4일(목) 10:00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3월 5일(금) 10:00	은빛(지혜여정 1)
지세포	3월 3일(수) 19:30	가톨릭 서간, 요한 묵시록
태평동	3월 5일(금) 19:30	오경 2
장승포	3월 3일(수) 19:30	역사서 2
마산교도소	3월 3일(수) 13:30	마르코 복음서
작은예수회	3월 4일(목) 10:00	은빛(탈출기)

● 문 의 : 성경부 055)249-7025~6

마음의 태양을 따라가는 길-김의정의 『목소리』

김은정 엘리사벳 교수/ 경남대학교

김의정은 1961년에 등단하여 1990년대까지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 온 여성 작가이다. 그녀의 작품 세계는 가톨릭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녀의 작품집 대부분이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을 잘 보여 주기도 한다.

『목소리』는 1967년 월탄문학상을 받은 작품으로 김의정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6·25 발발 초기 공산군에 점령된 서울을 무대로 삼고 전개되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김의정은 공산주의 자들에 의한 천주교 박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한국인 신부, 외국인 신부, 한국인 수녀, 외국인 수녀, 한국인 평신도 등을 두루 등장시키면서 작가는 그들의 고난을 면밀하게 그려 나간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한국인 신부와 수녀는 처형당하고, 외국인 신부와 수녀들은 공산군에 붙잡혀 북쪽을 향하여 '죽음의 행진'을 하게 된다. 여주인공 수임은 전쟁 발발 후에 자원하여 수녀가 된 인물이다. 그녀는 간신히 공산군에 붙잡히는 것을 모면하지만, 스스로 그 행진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결심하는 것으로 소설은 결말이 난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이 마음의 태양은 어찌하여 남에서 북으로 궤도를 바뀐 것일까? 그것이 자기가 바라는 천주의 섭리라면 수임은 그 길이 제아무리 험악한 길이라 해도 그 태양을 따라 북으로 북으로 걸어가야 한다고 몇 번이고 자신에게 다짐했다.

여기에서 '마음의 태양'은 수임이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글라라 수녀를 가리킨다. 프랑스 사람인 글라라 수녀가 북으로 강제 이송되는 것을 목격하고서 수임은 자기도 그녀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한다. 수임은 원래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있었다. 그런 그녀가 수녀가 되고, 그것도 모자라 스스로 죽음의 길로 나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그래서 문학 이론가들은 이러한 작품 줄거리에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강조하는 마음의 '목소리'가 수임에게 내려진 '성소'라면, 그리고 그 '성소'에 대한 응답이 수임에게 맡겨진 책무라고 해석한다면 주인공 수임의 행동이 '느닷없는'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작품의 핵심 부분을 보자.

글라라 수녀와 군관 동무와 수임이, 그들의 시선이 교차되는 점은 모든 장애와 이념과 국적까지도 초월한 따사롭고 부드러운 인간애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짧은 한 문장은 글라라 수녀, 인민군, 수임 세 사람의 시선이 교차하는 순간의 의미를 묘사하고 있다. 북송되는 글라라 수녀를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 김밥 장사로 가장하여 나온 수임, 이것을 눈치채고도 눈감아 주는 인민군 군관 동무, 그리고 수임의 애끓는 시선을 침묵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글라라 수녀의 마음이 찰나의 교감을 이루고, 그곳에 '색깔이 다른 목소리'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인간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작가 김의정이 『목소리』에서 보여주고자 한 것은 바로 다른 국적, 계급, 이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라도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화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음의 태양'을 따르는 것은 바로 그 화합으로 이르는 길이다. 제각각의 목소리로 어지러운 시기, 미워하는 마음보다 '사랑에 대한 사랑'으로 서로를 포용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가 아닐까.